Kiwoom 글로벌 리서치
2019년 6월 10일 | 글로벌 ETF 이슈/전략

찬바람 불기 전
돈 버는 미 배당주 ETF투자
– Feat. 변동성 견뎌내기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말은 미국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부분 연말을 배당기산일로 삼는 국내 기업과 달리 미국에는 매 분기, 심지어 매 월마다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산적해 있다. 미국은 배당 지급의 역사가 길고, 주주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이므로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높아 더욱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가 가능하다.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 의구심이 확대될 때, 미 배당주 투자는 적어도 주가 하락을 견뎌낼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해 줄 것이다. 일시적 위기나 대규모 침체 구간에서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기업, 지속적인 배당금 증액으로 주주들과의 신뢰를 쌓아온 기업들을 스크리닝하고 이들 기업으로 구성된 ETF 종목까지 살펴보기로 한다.

키움증권

Global ETF Strategist 김진영
02) 3787-4870
jykim@kiwoom.com

RA 지은송
02) 3787-4932
jesky95@kiwoom.com

목차

Summary 3

찬 바람 불기 전 돈 버는 미국 배당 ETF 3

Ⅰ. 흔들릴 때 빛나는 배당주 투자 4

저성장·저금리 환경에서의 투자 대안은? 4

고배당 vs. 배당성장 7

미국 상장 배당주 ETF 12

리츠 ETF에서 찾는 배당 기회 14

Ⅱ. 배당 테마 ETF 포트폴리오 17

Appendix 18

ETF 종목 분석 21

Vanguard Dividend Appreciation ETF (VIG.US) 22

ProShares S&P 500 Dividend Aristocrats ETF (NOBL.US) 24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입니다.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 배포, 전송, 변형, 대여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Summary

>>> 찬 바람 불기 전 돈 버는 미국 배당 ETF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말은 미국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부분 연말을 배당기산일로 삼는 국내 기업과 달리 미국에는 매 분기, 심지어 매 월마다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산적해 있다. 미국은 배당 지급의 역사가 길고, 주주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인 만큼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높아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가 가능하다. 달러 가치의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도 다른 국가들보다 미국 배당주 투자가 좀 더 매력적이다.

경기 측면에서도,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G2 및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기조는 당분간 더 지속될 분위기다. 높아진 금리인하 기대감을 반영한다면 배당주 투자에 대한 관심은 더 부각될 수 있다. 특히 저금리 환경과 유동성 공급이 지속될 것을 감안할 때, 성장형(실적 증가)이면서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배당 증가)을 주목해 볼 만하다. 이익과 배당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주식을 '배당성장주'로 분류하는데, 즉 일정기간 이상 배당금이 꾸준히 증액되어온(한번도 삭감되지 않은) 종목들이다. 배당성장주들은 기초체력이 튼튼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고, 수익률도 벤치마크 지수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해야만 배당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의 성장은 기업이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개별 종목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배당 테마를 지닌 ETF로의 투자는 더욱 추천할 만 하다. 종목 발굴의 부담을 덜 수 있고, 비교적 낮은 가격대에 좋은 배당주를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에는 전통적인 배당주 외에도 REITs, MLP, BDC 등 여러 형태의 테마주가 존재하고, 이들 조합으로 구성된 ETF 상품도 다양해 선택의 폭이 훨씬 넓다.

물론 지금의 변동성 구간에서 배당주 투자가 유일한 해답은 아니다. 채권과 비교하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주식시장 반등 시에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부진할 수 있다. 다만, 주가 등락 시에도 들어올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된다면, 적어도 이는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미 10년물 채권 금리 vs. S&P 500 배당수익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Ⅰ. 흔들릴 때 빛나는 배당주 투자

>>> 저성장·저금리 환경, 투자 대안은?

미 배당주 투자로 변동성 견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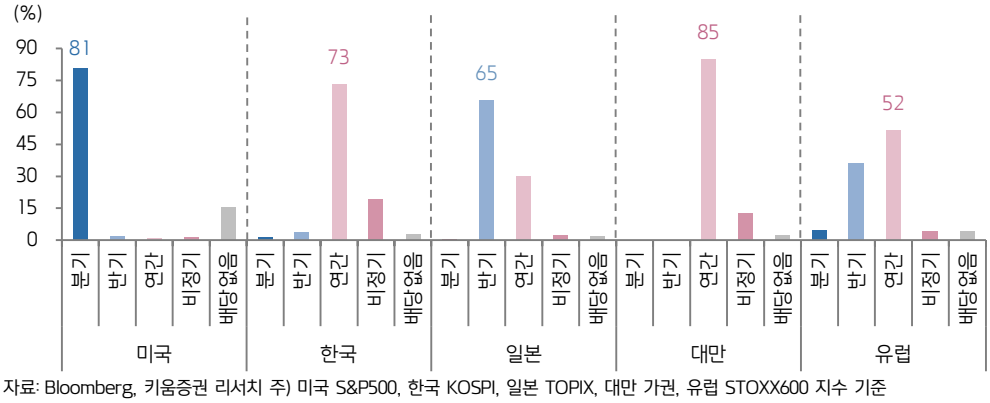
미-중 무역분쟁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 공격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5월의 마지막 거래일,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는 2.1%대까지 떨어졌고, 장단기(10년물-2년물) 금리차는 약 15bp까지 축소됐다. 달러인덱스는 강세 기조가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96선을 웃돌고 있으며, 국제유가는 5월 31일 배럴 당 53.5달러로 지난 4월 30일 대비 16.3% 하락했다.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최근 들어 안전자산 선호심리 확대와 함께 배당주 투자, 방어적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한달 간 미국 상장 주식형 ETF에서는 약 148억 달러가 유출된 반면, 주식 배당형 ETF로는 21.6억 달러의 자금이 순 유입 됐다.

그러나 사실 미국에서 배당주 투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때뿐만 아니라 꾸준히 인기가 높은 투자 테마로 자리잡아왔다. 오래 전부터 미국 투자자들은 배당주 투자를 연금 대비, 노후 대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꾸준히 성장하는 글로벌 대표 기업들이 미국에 밀집해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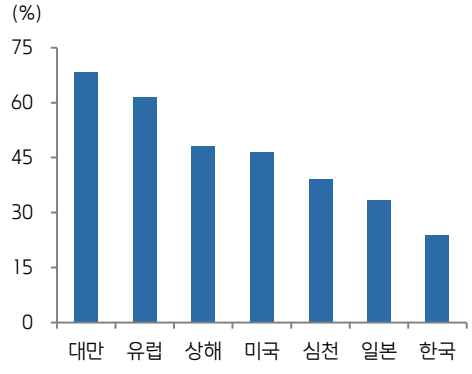
또한 대부분 연말을 배당기산일로 삼는 국내와 달리 미국에는 매월, 매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산적해 있다. 미국은 배당 지급의 역사가 길고, 주주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이 높아 더욱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가 가능하다. 실제로 S&P 500 지수에 속한 500개 기업 중 81%(408개 기업)가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을 만큼, 대표 주가지수 내 분기배당 종목 비율이 타 국가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한국 1.3%, 일본 0.4%, 유럽 4.5%)

국가별 대표 지수 구성종목 배당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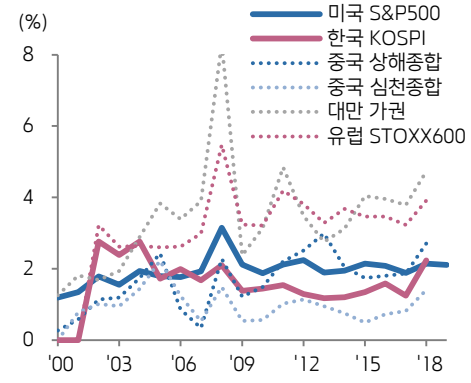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미국 S&P500, 한국 KOSPI, 일본 TOPIX, 대만 가권, 유럽 STOXX600 지수 기준
주2) 가장 최근 1FY 기준

주요국 배당성향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최근 1FY 기준

주요국 배당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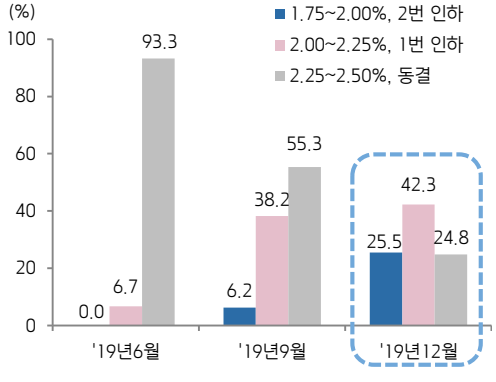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미 10년물 채권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하반기 미 연준 금리정책 예상



자료: CME Fed Watch, 키움증권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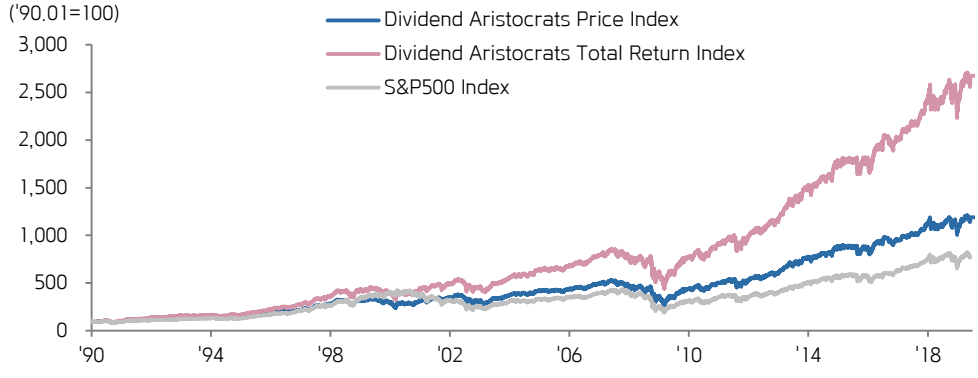
물론 배당성장률이 높다고 모두 수익률이 높은 것도 아니며, 또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모두 높은 배당을 주지 않는다. 지나친 배당, 무조건적인 배당은 회사의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를 저해할 수 있고,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과 같이 경쟁이 치열하고 대규모 자본 투자가 지속되는 기술주들은 배당 대신에 주가 상승을 통해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배당이 매우 낮거나 없는 경우도 많다.

다만, 배당주는 높은 성과 대신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투자 기간을 늘리면 시장(Market) 대비 배당주의 아웃퍼폼이 더 명확히 드러난다. S&P 500 구성종목 중 '*Dividend Aristocrats'(배당귀족)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으로 구성된 S&P 500 Dividend Aristocrats Price Index(이하 'Price Index'), S&P 500 Dividend Aristocrats Total Return Index(이하 'TR Index'), 그리고 S&P 500 지수의 1990.01.02~2019.05.31 수익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1990년 1월 초 대비 2019년 5월 말까지의 Price Index, TR Index의 상승폭은 S&P 500 지수 대비 각 1.5배, 3.3배에 달했다.

*Dividend Aristocrats(배당귀족): 1) S&P 500 지수에 속하면서, 2) 최소 25년 간 한번도 빼놓지 않고 배당을 인상한 기업들이자, 3)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충분해 유동성 함정 위험이 적은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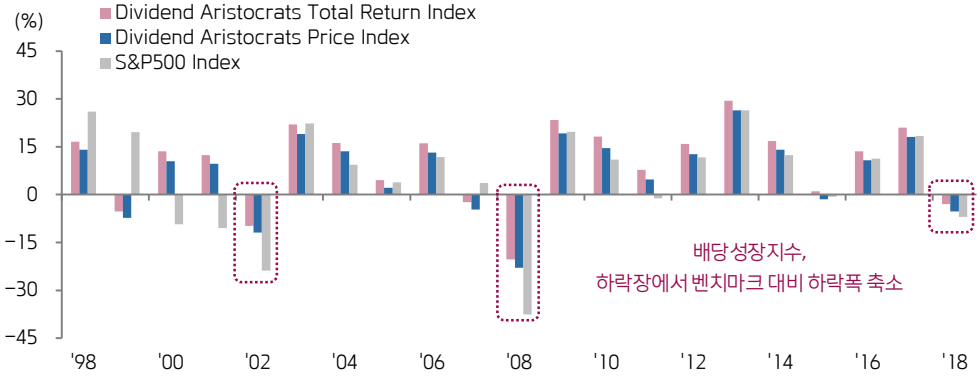
또한 배당주는 흔들리는 장세에서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좀 더 뛰어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1998년 이후 작년까지 약 20년 간 Price Index와 TR Index, 그리고 S&P 500 지수의 연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증시 하락폭이 두드러졌던 2002년과 2008년, 그리고 2018년 두 지수는 모두 S&P 500 지수 수익률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S&P 500 지수가 40% 가까이 하락할 동안 두 지수는 각 20%, 23% 하락하며 벤치마크 대비 하락폭을 크게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지수의 구성종목 중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큰 월마트(WMT.US)는 2008년 당시에도 연간 19.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월마트는 2000년대 들어 연 4회 분기 배당을 꾸준히 실시해온 대표적인 배당성장 기업이다.

90년대 이후 미 배당귀족(Dividend Aristocrats) vs. S&P 500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파란색은 S&P 500 구성종목 중 25년 이상 배당성장한 기업들로 구성 된 S&P 500 Dividend Aristocrats Price Index, 분홍색은 해당 지수를 모지수로 하는 Total Return Index

배당 귀족(Dividend Aristocrats) vs. S&P 500 연간 수익률 비교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 고배당 vs. 배당성장

고배당 보다는 배당성장

배당주는 크게 고배당주와 배당성장주로 분류 가능하다. 고배당주란,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배당금을 많이 주는 혹은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뜻한다. 통상 기업규모가 크고 이익이 안정적이며, 기관 및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배당률 혹은 배당성향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고배당주라 볼 수 없다. 기업의 순이익이 감소하면 시가배당률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또 기업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주당배당금을 유지하면 배당성향은 올라가지만, 이런 과정에서 오른 배당성향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고배당주는 시장 평균대비 높은 배당률을 보유하고, 배당성향을 꾸준히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고배당주라 해서 무조건 성장성이 좋은 기업을 뜻하진 않는다. 현재 지나치게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실적이 나빠지면서 주가가 하락해 배당률이 올라간 종목은 향후 배당 삭감 등의 위험부담이 상존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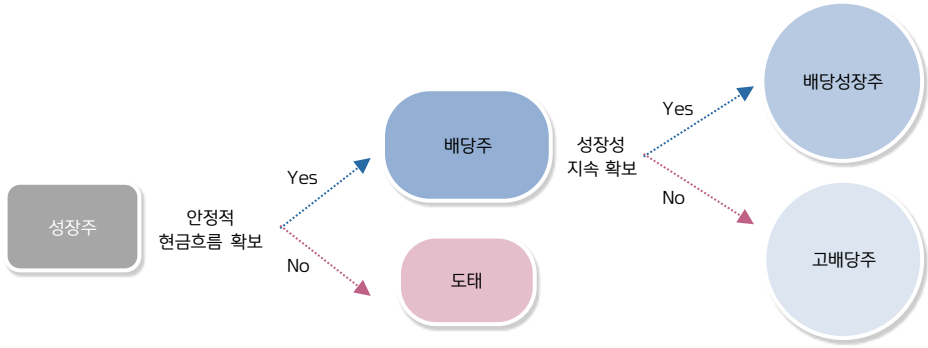
반면, 배당성장주는 순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주당배당금도 매년 꾸준하게 늘어가는 주식이다. 여기에는 현재 배당률이 낮지만 향후 올라갈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도 해당한다. 강력한 펀더멘털과 안정적인 수익, 향후 전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기업들은 시장 혼란 속에서도 투자자로 하여금 견딜 수 있게 하는 수익을 제공한다. 배당성장주는 고배당주와 비교해, 현재의 배당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관건은 매년 배당금을 일정한 비율로 올려줄 수 있는지의 여부이며, 오히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시세차익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다. 따라서 무조건 높은 배당수익률을 쫓기 보단, 적절한 배당수익률에 안정적인 성장성을 갖춘 배당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고배당주 vs. 배당성장주

	고배당주	배당성장주
정의	배당수익률이 높은 기업, 시장 평균대비 높은 시가배당률을 보유하고, 배당성향을 꾸준하고 적정하게 유지하는 기업	순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주당배당금도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기업
분류 기준	배당수익률, 배당성향의 수준	이익성장 및 이익잉여금, 과거 배당수익률/배당성향
대표 기업	제너럴일렉트릭, 크래프트 하인즈, 웰스파고	Johnson & Johnson, 3M, Coca-Cola 등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배당주 분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미국은 기업 배당의 역사가 깊고 주주환원에 대한 가치가 높게 형성돼있는 만큼, 배당성장주 역시 상대적으로 많다. 배당성장주는 연속 배당지급 연수 및 조건에 따라 크게 6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배당킹(Dividend King), ▲배당귀족(Dividend Aristocrats) ▲배당어취버(Dividend Achievers), ▲배당챔피언(Dividend Champions), ▲배당컨텐더(Dividend Contenders), ▲배당챌린저(Dividend Challengers)이다.

미국 배당성장주 분류 및 정의

배당 지위	정의	대표 기업
배당킹 Dividend Kings	50 년 이상 배당 증가, 지급 기업	Johnson & Johnson, Coca-Cola, 3M, Hormel Food, P&G, Target 등 26 개
***배당귀족** S&P 500 Dividend Aristocrats	25 년 이상 배당 증가, 지급 기업이면서 S&P 500 지수에 속하고, 유동성이 확보된 기업	AT&T, Exxon Mobile, Walmart, McDonald's, Medtronic 등 57 개
***배당어취버** Nasdaq Dividend Achievers	10 년 이상 배당 증가, 지급 기업이면서 일정 수준의 규모와 유동성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Walmart, United Technologies, Chevron, AT&T, Altria, NIKE 등 264 개
배당챔피언 Dividend Champions	25 년 이상 배당 증가, 지급 기업	Caterpillar, Emerson Electric, S&P Global, Target, Johnson & Johnson 등 137 개
배당컨텐더 Dividend Contenders	10~24 년의 배당 증가, 지급 기업	BlackRock, VISA, Microsoft, Cardinal Health, IBM, Costco 등 232 개
배당챌린저 Dividend Challengers	5~9 년의 배당 증가, 지급 기업	Apple, Boeing, Invesco, AbbVie, Skyworks Solutions 등 515 개

자료: Dripinvesting.org, Suredividend.com,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주) 5월 말 기준, 배당 컨텐더와 챌린저는 배당 챔피언 하위 범주에 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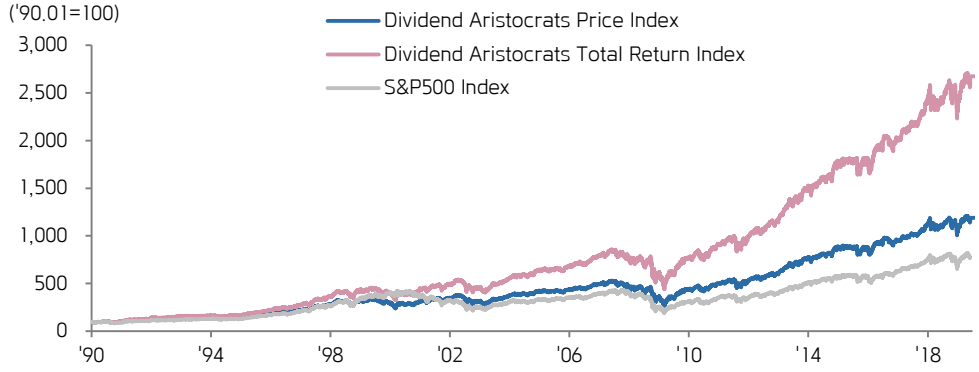
배당성장주가 매력적인 이유

배당성장주 중에서도 '배당귀족(Dividend Aristocrats)'이라 불리는 종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배당귀족은 정의 상 1) S&P 500 지수에 속하면서, 2) 최소 25년 간 단 한번도 빼놓지 않고 배당을 인상한 기업들이자, 3)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충분해 유동성 함정 위험이 적은 종목들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AT&T, Procter & Gamble, Johnson & Johnson 등이 이 그룹에 속한다. 현재 시장에는 배당귀족을 충족시키는 요건으로 구성된 S&P 500 Dividend Aristocrats Index가 상장되어 있고, 이를 추종하도록 설정된 두 종류의 ETF(NOBL, REGL)가 운용되고 있다.

배당귀족보다 더한 주식들도 있다. 무려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배당을 증가해온 기업들이다. 다만, 배당킹이라고 해서 모두 배당귀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배당킹이 되기 위해서는 50년 간 꾸준한 배당금 증액 조건만 충족하면 되지만 배당귀족의 조건은 더 까다롭기 때문이다. 올해 5월 기준 미국에는 약 26개의 배당킹과, 약 57개의 배당귀족 종목이 상장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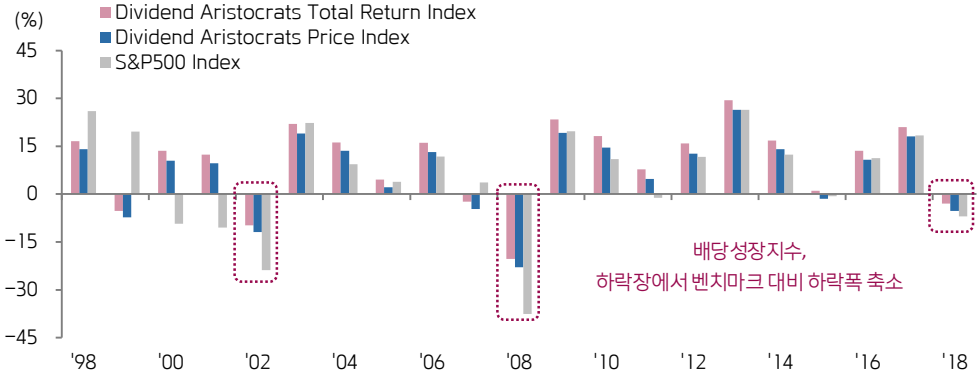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배당성장주의 가치는 위기 틈에서 빛을 발한다. 적어도 지난 10년 간 배당금을 삭감하지 않았다는 것은 2008년 이후 벌어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2~2013년 유럽 재정위기, 2016년 브렉시트, 트럼프 대통령 당선, 그리고 현재의 미-중 무역분쟁 등 굵직한 위기를 지나는 속에서도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배당귀족, 배당킹처럼 연속 증액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위기 가운데 살아남은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안정적인 재무관리가 가능하면서도 주주가치 제고에 가치를 둔 기업들이라면 향후에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높다.

90년대 이후 미 배당귀족(Dividend Aristocrats) vs. S&P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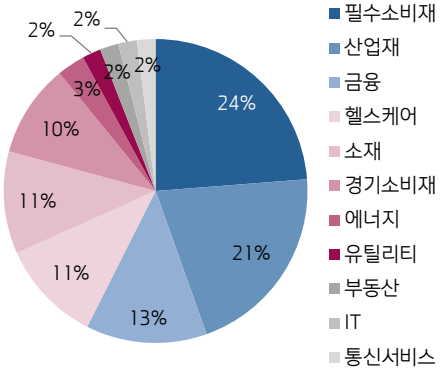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파란색은 S&P 500 구성종목 중 25년 이상 배당성장한 기업들로 구성 된 S&P 500 Dividend Aristocrats Price Index, 분홍색은 해당 지수를 모지수로 하는 Total Return Index

배당 귀족(Dividend Aristocrats) vs. S&P 500 연간 수익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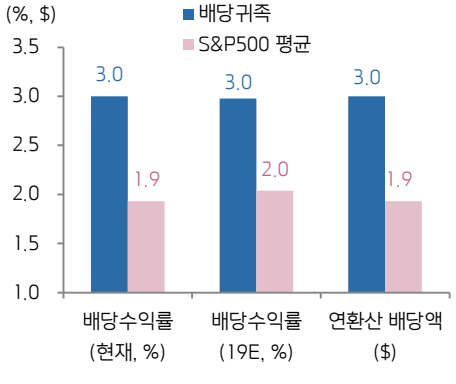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미국 배당귀족 지수 섹터별 비중



자료: S&P Global,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19-05-31 기준

미국 배당귀족 vs S&P 500 비교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19-05-31 기준

미국 25 년 이상 배당성장주 리스트 (1)

티커	종목명	섹터	시가총액 ($ mln)	배당증액기간 (년)	배당수익률 12M (%)	배당성향 12M (%)	연환산배당액 ($)	배당락예정일	부채비율 12M (%)	이익성장률 3Y (%)	배당성장률 (%)		수익률(%)		
											3Y	5Y	1M	3M	YTD
AWR	아메리칸 스테이츠 워터	유틸리티	2,774	64	1.5	61.3	1.1	05/15	74.7	2.3	7.1	6.3	5.5	7.2	12.4
NWN	노스웨스트 내추럴 홀딩	유틸리티	2,055	65	2.8	81.2	1.9	04/29	125.1	-133.6	0.5	0.7	-2.0	5.9	12.4
DOV	도버	산업재	13,764	63	2.0	48.2	1.9	05/30	114.3	-3.9	4.6	5.1	-2.6	6.1	33.5
PG	P&G	필수소비재	269,344	62	2.8	77.1	3.0	04/17	59.2	19.6	2.9	3.4	2.6	9.1	16.8
EMR	에머슨 일렉트릭	산업재	38,531	62	3.1	55.8	2.0	05/16	52.9	-0.6	1.0	2.8	-7.2	-5.9	4.9
GPC	제뉴인 파츠	자유소비재	14,701	62	3.0	52.1	3.1	06/06	90.5	6.2	5.2	5.9	1.6	-5.0	4.8
MMM	쓰리엠	산업재	94,949	60	3.5	59.7	5.8	05/23	148.5	3.6	9.5	13.4	-8.0	-18.0	-13.6
CINF	신시내티 파이낸셜	금융	16,602	58	2.2	120.2	2.2	06/18	11.1	-0.8	-2.5	5.0	7.1	20.4	31.4
KO	코카콜라	필수소비재	219,278	56	3.1	99.4	1.6	06/13	228.5	107.8	5.4	6.5	7.1	14.6	8.6
JNJ	존슨앤드존슨	건강관리	362,893	56	2.8	62.1	3.8	05/24	51.0	330.6	6.2	6.4	-2.4	-1.0	5.9
LOW	로우스	자유소비재	75,348	56	2.3	65.0	2.2	07/23	445.2	9.1	19.7	21.7	-10.2	-3.1	4.2
LANC	랭커스터 콜로니	필수소비재	4,024	56	1.8	47.8	2.6	06/06	0.0	10.6	-28.4	8.2	-2.4	-3.3	-17.3
ITW	일리노이 툴 웍스	산업재	48,231	55	2.7	43.9	4.0	06/27	226.5	14.0	21.0	18.2	-2.4	5.3	16.9
CL	콜게이트-팜올리브	필수소비재	62,766	55	2.4	60.2	1.7	04/17	3,232	26.0	3.4	4.1	3.7	11.9	22.8
CB	처브	금융	68,067	53	2.0	33.9	3.0	06/20	25.6	14.0	2.9	5.1	4.1	12.3	15.1
TR	투시 롤 인더스트리스	필수소비재	2,385	53	0.9	40.3	0.4	06/14	1.0	-2.6	3.0	5.5	-1.1	4.7	18.4
HRL	호멜 푸즈	필수소비재	22,149	52	2.0	39.3	0.8	07/12	11.1	14.8	13.8	16.5	6.9	-3.5	-2.8
ABM	ABM 인더스트리즈	산업재	2,640	51	1.8	48.2	0.7	07/03	64.6	785.1	3.0	3.1	4.8	21.7	23.9
SWK	스탠리 블랙 & 데커	산업재	20,640	51	1.9	63.6	2.6	06/03	53.6	-4.8	6.3	5.7	-5.2	5.4	13.8
SJW	SJW	유틸리티	1,774	51	1.9	59.5	1.2	05/03	59.8	5.7	13.4	9.4	2.6	4.4	12.2
SCL	스테판	소재	2,037	51	1.1	18.5	1.0	05/30	35.2	14.3	9.1	7.8	1.8	0.7	21.7
FRT	페더럴 리얼티 인베스트	부동산	9,904	51	3.1	127.8	4.1	06/20	124.0	6.1	3.2	5.7	1.9	0.3	12.0
CWT	캘리포니아 워터 서비스	유틸리티	2,433	51	1.6	55.0	0.8	05/03	120.5	16.0	4.2	3.6	0.9	-3.8	6.0
TGT	타겟	자유소비재	43,907	51	3.0	46.0	2.6	05/14	119.0	-105.9	4.6	8.3	14.2	13.0	29.7
CBSH	커머스 뱅크셰어스	금융	6,509	50	1.8	23.9	1.0	06/06	66.9	18.7	8.9	7.0	-2.8	-2.3	4.5
FUL	HB 풀러	소재	2,183	49	1.5	18.3	0.6	04/17	194.9	59.7	5.6	8.3	-10.3	-12.2	0.6
CTWS	코네티컷 워터 서비스	유틸리티	831	49	1.9	89.3	1.3	05/31	107.4	-7.8	5.2	5.0	-0.9	0.9	3.0
BKH	블랙 힐스	유틸리티	4,697	49	2.6	40.2	2.0	05/16	137.4	-46.2	6.4	5.3	4.2	6.9	23.9
NFG	내셔널 퓨얼 가스	유틸리티	4,796	48	3.1	36.9	1.7	03/28	110.0	-60.9	2.5	2.5	-2.7	-7.2	8.6
SYY	시스코	필수소비재	36,467	48	2.2	51.4	1.6	07/03	327.3	27.9	7.1	5.6	-2.7	7.9	13.2
TNC	테넌트	산업재	1,070	47	1.5	45.6	0.9	05/30	112.2	-235.8	2.8	3.3	-10.1	-3.9	13.0
GWW	그레인저	산업재	14,740	47	2.2	39.0	5.8	05/10	106.1	3.0	5.3	7.4	-3.8	-9.4	-5.8
MSA	MSA 세이프티	산업재	3,959	47	1.6	46.1	1.7	05/17	56.5	111.7	6.5	5.2	-7.1	0.1	8.6
UVV	유니버설 코퍼레이션	필수소비재	1,497	47	5.1	72.4	3.0	07/05	30.6	-2.7	12.6	8.2	11.3	1.3	10.6
BDX	벡톤 디킨슨	건강관리	63,827	47	1.3	487.5	3.1	06/06	102.4	-6.2	5.9	7.5	1.8	-4.1	5.0
LEG	레겟 & 플랫	자유소비재	4,944	47	4.2	65.9	1.6	06/13	101.0	-0.3	6.2	5.0	-4.1	-15.0	5.1
VFC	VF	자유소비재	33,544	46	2.4	60.9	2.0	06/07	64.8	N/A	13.0	14.6	-4.2	6.6	25.8
HP	헬머리치 & 페인	에너지	5,600	46	5.5	62.0	2.8	05/10	11.3	-154.8	1.1	4.8	-10.4	-3.1	6.8
KMB	킴벌리클라크	필수소비재	45,924	46	3.1	98.7	4.1	06/06	41,417	27.0	4.5	4.2	5.9	15.3	17.2
PEP	펩시코	필수소비재	185,012	46	2.9	40.6	3.8	06/06	221.3	50.2	9.3	9.7	4.8	14.5	19.5
ABBV	애브비	건강관리	113,935	46	5.6	107.6	4.3	04/12	N/A	4.0	23.4	20.2	-1.1	-0.7	-16.4
ABT	애보트 래버러토리	건강관리	141,293	46	1.6	87.4	1.3	04/12	63.7	87.4	6.3	10.8	4.1	4.5	10.7
PPG	PPG	소재	26,672	46	1.7	34.2	1.9	05/09	106.0	9.6	9.1	9.0	-1.3	3.1	10.5
MSEX	미들섹스 워터	유틸리티	979	46	1.6	46.2	1.0	05/14	83.1	18.7	6.2	4.5	4.7	3.3	11.4
GRC	고먼-러프	산업재	783	46	1.8	164.0	0.5	05/15	0.0	18.8	82.7	48.5	-10.4	-9.8	-7.5

자료: Dividend.com,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19-06-06 기준, 연환산 배당액은 가장 최근 배당금을 연율화 한 값

미국 25 년 이상 배당성장주 리스트 (2)

티커	종목명	섹터	시가총액 ($ mln)	배당증액기간 (년)	배당수익률 12M (%)	배당성향 12M (%)	연환산배당액 ($)	배당락예정일	부채비율 12M (%)	이익성장률 3Y (%)	배당성장률 (%)		수익률(%)		
											3Y	5Y	1M	3M	YTD
NUE	뉴코	소재	15,367	45	3.2	20.7	1.6	06/27	42.1	343.7	1.4	1.1	-10.3	-12.8	-2.7
WMT	월마트	필수소비재	301,363	44	2.0	91.5	2.1	08/08	68.0	-15.0	2.0	2.0	3.8	7.7	12.8
ADP	오토매틱데이터 프로세싱	정보기술	71,508	44	1.9	68.5	3.2	06/13	42.3	4.1	13.2	10.1	3.8	10.1	25.3
ED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	유틸리티	29,795	44	3.3	64.3	3.0	05/14	123.0	5.8	3.3	3.2	5.0	6.8	17.1
RPM	RPM 인터내셔널	소재	7,686	44	2.4	50.2	1.4	04/15	133.1	28.4	8.1	7.7	-2.6	2.9	-0.2
TDS	텔레폰&데이터 시스템스	커뮤니케이션	3,466	44	2.2	53.1	0.7	06/13	46.0	54.6	4.1	4.5	-5.4	-2.1	-6.6
MGEE	MGE 에너지	유틸리티	2,434	43	1.9	54.3	1.4	05/30	62.6	7.1	4.6	4.4	3.9	9.3	17.1
WBA	월그린스부츠 얼라이언스	필수소비재	46,611	43	3.5	32.3	1.8	05/17	53.9	6.6	6.9	6.9	-3.7	-14.9	-25.4
ADM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	필수소비재	22,244	43	3.5	41.9	1.4	05/14	44.0	2.5	5.7	9.8	-7.0	-5.3	-3.1
CSL	칼라일	산업재	7,785	42	1.2	26.0	1.6	05/14	61.1	30.5	10.1	12.7	-0.9	12.3	35.7
PNR	펜테어	산업재	6,207	42	2.0	48.2	0.7	07/18	42.9	-267.9	-18.3	-6.6	-4.7	-13.3	-4.4
MCD	맥도날드	자유소비재	155,040	42	2.3	55.7	4.6	05/31	N/A	9.5	8.5	7.0	2.5	13.1	14.3
RLI	RLI Corp	금융	3,887	42	1.1	129.2	0.9	05/30	18.5	-21.3	-12.0	-2.9	6.1	26.1	26.5
CLX	크로락스	필수소비재	20,246	41	2.7	54.7	4.2	07/30	342.0	12.4	7.6	6.2	7.1	0.7	3.1
MDT	메드트로닉	건강관리	129,377	41	2.1	58.1	2.0	03/21	50.4	7.7	9.6	12.3	8.1	6.6	6.1
SHW	셔윈-윌리엄즈	소재	43,071	40	1.0	29.1	4.5	05/16	250.5	8.1	9.6	13.6	4.4	11.9	18.6
EV	이튼 밴스	금융	4,608	38	3.5	39.8	1.4	04/29	103.4	19.0	9.2	9.6	0.8	1.2	14.4
SON	소노코 프로덕트	소재	6,509	38	2.6	51.9	1.7	05/09	78.2	18.2	5.3	5.8	2.8	11.6	22.5
CTBI	커뮤니티트러스트 뱅코프	금융	717	38	3.6	41.2	1.4	06/13	52.1	8.6	4.7	4.0	-4.1	-1.4	1.9
ORI	올드리퍼블릭 인터내셔널	금융	6,822	37	3.6	61.9	0.8	06/03	19.1	-1.1	2.0	1.7	2.0	9.1	9.5
BEN	프랭클린 리소시스	금융	16,836	37	3.1	285.4	1.0	03/28	6.5	-23.9	14.1	17.5	-1.3	5.9	11.8
WEYS	웨이코 그룹	자유소비재	257	37	3.7	45.4	1.0	05/30	2.8	4.9	4.7	5.0	-22.6	-18.6	-11.7
CTAS	신타스	산업재	24,212	36	0.9	22.4	2.1	11/08	84.0	35.2	25.0	21.6	5.8	15.0	37.8
AFL	애플랙	금융	40,121	36	2.0	27.4	1.1	05/21	24.6	13.8	9.4	7.7	7.4	10.9	18.1
APD	에어프로덕츠& 케미컬스	소재	48,757	36	2.1	64.0	4.6	06/28	30.7	91.6	10.7	9.0	10.1	22.1	38.4
XOM	엑슨 모빌	에너지	314,413	36	4.7	66.2	3.5	05/10	19.0	35.2	4.2	5.2	-3.1	-5.9	9.0
ATO	애트모스 에너지	유틸리티	12,193	36	2.0	35.7	2.1	05/24	76.4	25.5	7.7	7.1	1.9	4.1	12.4
BMS	베미스	소재	5,117	35	2.3	50.5	1.3	04/26	111.9	26.2	3.4	3.5	-3.7	5.8	22.2
DCI	도널드슨	산업재	6,194	34	1.7	53.1	0.8	06/12	63.3	-3.0	3.8	5.7	-8.0	0.5	11.8
T	AT&T	커뮤니케이션	234,266	34	6.4	72.8	2.0	04/09	91.0	30.0	2.1	2.1	5.1	7.1	12.5
ECL	에코랩	소재	56,717	33	0.9	34.1	1.8	06/17	87.5	13.3	8.6	11.5	9.6	16.0	33.5
CVX	쉐브론	에너지	229,864	33	3.9	57.4	4.8	05/16	22.1	-666.6	2.6	2.6	2.0	-0.8	10.9
TMP	톰킨스 파이낸셜	금융	1,211	33	2.5	36.6	2.0	05/06	189.2	15.6	4.4	4.6	-1.5	1.1	5.5
UHT	유니버설헬스 리얼티인컴	부동산	1,144	33	3.2	152.0	2.7	03/18	131.6	30.2	1.5	1.5	1.2	15.2	35.6
UGI	UGI	유틸리티	9,350	33	2.2	24.6	1.2	06/13	112.0	38.0	4.6	6.7	-0.4	-1.7	0.6
BRC	브래디	산업재	2,502	33	1.8	47.1	0.9	07/09	7.0	865.5	1.5	1.7	-2.7	3.2	9.0
SRCE	퍼스트 소스	금융	1,148	33	2.4	30.5	1.1	05/03	43.1	13.1	13.9	10.6	-6.9	-2.7	10.8
MCY	머큐리 제너럴	금융	3,300	33	4.2	N/A	2.5	06/12	23.0	-2.5	0.4	0.4	6.8	17.0	15.3
THFF	퍼스트 파이낸셜	금융	480	32	2.7	26.9	1.0	06/14	15.7	21.0	1.3	1.2	-5.0	-8.9	-2.7
TROW	T.로우 프라이스	금융	24,530	32	2.9	38.7	3.0	06/13	0.0	15.1	10.8	12.6	0.4	7.1	12.4
MKC	맥코믹	필수소비재	20,812	32	1.4	29.3	2.3	04/05	147.6	38.1	9.5	9.0	3.0	15.1	13.3
WST	웨스트파마수티컬 서비스	건강관리	8,677	26	0.5	20.8	0.6	07/23	14.0	30.8	7.9	8.4	-2.7	16.3	20.5
SKT	텐저 팩토리 아웃렛 센터	부동산	1,555	26	8.6	306.1	1.4	04/29	338.8	-36.3	0.4	9.0	-12.3	-19.3	-18.3
CFR	컬런/프로스트 뱅커스	금융	5,907	26	3.0	37.3	2.8	05/30	47.6	17.8	8.5	6.2	-7.6	-7.5	6.5
ESS	에섹스프로퍼티 트러스트	부동산	19,485	25	2.6	125.9	7.8	06/27	88.1	24.4	8.3	9.2	6.3	4.6	20.9

자료: Dividend.com,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19-06-06 기준, 연환산 배당액은 가장 최근 배당금을 연율화 한 값

>>> 미국 상장 배당주 ETF

그리고, 미국에는 배당을 테마로 출시된 다양한 ETF들이 출시되어 있다. 대표 고배당 ETF 중 하나인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SCHD)는 과거 10년 동안의 배당금 지급 추이와 현금흐름 및 부채비율, ROE 등 펀더멘털 기준을 충족하는 100개의 미국 기업을 시가총액으로 가중한 비율로 투자한다. 리츠는 배제하고 있으며 대표 기업으로 버라이즌, 애브비, 엑손모빌 등이 편입되어 있다.

배당성장 ETF 중에서는 Vanguard Dividend Appreciation ETF(VIG), ProShares S&P 500 Dividend Aristocrats ETF(NOBL) 등이 대표적으로 10년 연속, 혹은 25년 연속 배당금을 지속해 온 배당성장주들로 구성되어 있다. VIG ETF은 Nasdaq US Dividend Achievers Select Index를 기초 자산으로 추종하는데, 이 지수는 1) 나스닥 지수 내에서 2) 연간 배당액을 10년 이상 꾸준히 증액시켜왔으며 3) 리츠가 아닌 184개 기업을 시가총액으로 가중하여 구성된다. VIG ETF의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4.4%), 비자(4.2%), P&G(4.1%), 월마트(3.9%), J&J(3.9%), 컴캐스트(3.7%), 맥도날드(2.8%) 등으로 필수소비재 및 헬스케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NOBL은 S&P 500 Dividend Aristocrats Index를 기초 지수로 삼아 고안된 대표 배당성장 ETF이다. 앞서 상기된 것처럼, S&P 500 Dividend Aristocrats Index는 역사적으로 시장 하락 시 방어력이 벤치마크 대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소 25년 이상 연속해 배당을 늘린 기업을 편입해 이익과 배당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자본이익과 배당이익을 동시에 누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 고배당 vs. 배당성장 ETF 리스트

티커	ETF 명	AUM ($mln)	거래량 3M(천)	운용 보수 (%)	배당 빈도	배당 수익률 12M (%)	배당성장률(%)			부채 비율 12M (%)	순이익 성장률 3Y (%)	수익률(%)		
							1Y	3Y	5Y			1M	1Y	3Y
SPY	SPDR S&P 500 ETF Trust	260,359	73,887	0.09	Q	1.7	7.6	6.6	8.5	113.5	11.2	-2.7	2.7	34.8
고배당 (High Yield Dividend)														
VYM	Vanguard High Dividend Yield ETF	23,737	974	0.06	Q	3.0	9.9	7.5	8.5	N/A	N/A	-1.7	0.5	20.8
SDY	SPDR S&P Dividend ETF	18,463	580	0.35	Q	2.1	-46.6	-19.4	-3.5	79.9	13.8	-1.8	6.7	20.4
DVY	iShares Select Dividend ETF	17,077	564	0.39	Q	3.6	8.3	7.8	8.1	136.8	15.4	-2.8	-0.3	16.0
SCHD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9,275	936	0.06	Q	2.7	19.4	9.2	9.9	106.5	6.8	-3.0	3.0	27.0
HDV	iShares Core High Dividend ETF	7,161	534	0.08	Q	3.5	3.1	3.2	6.7	N/A	N/A	-0.6	9.6	15.9
RDIV	Invesco S&P Ultra Dividend Revenue ETF	1,729	286	0.39	Q	3.0	-10.1	6.1	25.3	95.2	15.3	-5.1	-5.2	18.1
FDL	FirstTrust Morningstar Dividend Leaders Index Fund	1,608	170	0.45	Q	3.0	12.4	9.6	9.3	N/A	N/A	-0.7	4.6	14.9
SPHD	Invesco S&P 500 High Dividend Low Volatility	3,224	735	0.30	M	4.4	16.8	10.4	9.7	132.8	16.2	-2.5	2.4	10.4
DLN	Wisdomtree US Large-cap Dividend	2,040	61	0.28	M	3.4	22.6	10.4	10.9	141.6	11.1	-2.4	3.4	26.0
DHS	Wisdomtree US High Dividend Fund	948	36	0.38	M	4.5	18.6	8.1	9.0	132.6	10.8	-2.0	2.2	10.4
배당성장 (Dividend Growth)														
VIG	Vanguard Dividend Appreciation ETF	34,275	798	0.06	Q	1.8	13.7	6.7	8.5	92.1	9.9	-0.3	8.1	36.7
DGRO	iShares Core Dividend Growth ETF	7,417	1,326	0.08	Q	2.3	13.5	21.3	N/A	N/A	N/A	-1.4	6.4	36.9
NOBL	ProShares S&P 500 Dividend Aristocrats ETF	4,748	523	0.35	Q	1.4	13.6	9.6	33.3	80.2	12.4	-0.5	7.3	26.9
SMDV	ProShares Russell 2000 Dividend Growers ETF	652	69	0.40	Q	1.3	11.8	14.8	N/A	76.9	11.5	-3.0	3.2	28.0
REGL	ProShares S&P Mid 400 Divid. Aristo. ETF	637	59	0.40	Q	1.2	-8.6	9.6	N/A	65.7	11.1	-3.4	5.0	25.1
KNG	Cboe Vest S&P 500 Dividend Aristocrats T.I. ETF	33	4	0.75	Q	4.3	N/A	N/A	N/A	N/A	N/A	-0.5	4.7	N/A
DGRW	Wisdomtree US Quality Dividend Growth Fund	2,613	330	0.28	M	3.5	38.0	14.1	16.2	123.5	14.1	-3.2	0.9	34.8
PEY	Invesco High Yield Equity Dividend Achievers ETF	824	154	0.54	M	3.9	3.7	11.2	10.3	N/A	N/A	-1.8	3.2	16.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19-06-06 기준,

1) 대표 고배당 ETF

티커	ETF 명	설명
VYM	Vanguard High Dividend Yield ETF	– 미국 대형가치주에 투자. 1 년 간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투자종목 선정, 리츠 제외 – 마이크로소프트, 엑손모빌, JNJ 등 편입.
SDY	SPDR S&P Dividend ETF	– S&P 1500 지수 구성종목 중 20 년 이상 배당금을 증액한 기업들로 구성, 꾸준한 배당을 지급한 리츠주식 포함 – 애브비, AT&T, Realty Income(리츠) 등 편입
DVY	iShares Select Dividend ETF	– 미국 중·대형주에 투자. 과거 5 년 간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기준 투자종목 선정. 섹터별 고른 분산과 대형주 우선의 편입. 리츠 포함 – 록히드 마틴, 셰브론 등 편입
SCHD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 1) 과거 10 년 간 배당금 지급 2) 현금흐름/부채 비율, ROE 등 펀더멘탈 기준 충족하는 미국 기업 100 개를 시가총액으로 가중, 리츠 제외 – 버라이존, 애브비, 엑슨 모빌, 제너럴 모터스 등 편입
HDV	iShares Core High Dividend ETF	– 경제적 해자 보유, 안정적인 자산/부채비율 유지 여부로 종목 선정. 리츠 제외 – 엑손모빌, AT&T, JNJ, 쉐브론, 버라이즌 등 편입
RDIV	Invesco S&P Ultra Dividend Revenue ETF	– S&P 900 지수 구성 기업 중 최근 12 개월 평균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은 미국 60 개 기업으로 구성 – 버라이존, 애브비, 엑슨 모빌, 제너럴 모터스 등 편입
FDL	First Trust Morningstar Dividend Leaders Index Fund	– 현재 배당금이 5 년 전 배당금보다 높으며, 1 회계연도 선행 EPS 추정치보다 낮은 미 기업 중 배당수익률 상위 100 개를 선정해 배당금으로 가중 – AT&T, 엑슨 모빌, 화이자, 쉐브론 등 편입
SPHD	Invesco S&P 500 High Dividend Low Volatility ETF	– 10 년 이상 배당 지급, 이후 배당 지급 가능성, 부채비율, ROE 등 기준으로 투자종목 선정. 리츠 제외 – 마이크로소프트, 쉐브론, P&G, 코카콜라 등 편입
DHS	WisdomTree U.S. High Dividend Fund	– 1) 최근 12 개월 내 배당금을 지급했으며 2) 시가총액 2 억 달러 이상인 미국 기업 선정, 리츠 비중이 가장 높음 – 리얼티 인컴, AT&T, 코카콜라, IBM 등 편입

자료: ETFdb.com, 키움증권 리서치

2) 대표 배당성장 ETF

티커	ETF 명	설명
VIG	Vanguard Dividend Appreciation ETF	– 나스닥 지수에서 중 10 년 연속 이상 배당금을 증액한 미국 대형/중형주 기업을 시가총액으로 가중, 리츠 제외 –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P&G, 월마트 등 편입
DGRO	iShares Core Dividend Growth ETF	– 1) 5 년 연속 이상 배당금 증액 2) 배당성향 75% 이상인 미국 기업 약 480 개를 배당액으로 가중, 리츠 제외 –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JP Morgan 등 편입
NOBL	ProShares S&P 500 Dividend Aristocrats ETF	– S&P 500 지수 구성 기업 중 1) 대형주이면서 2) 25 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금 증액한 약 60 개 기업을 동일 가중 – 신시내티 파이낸셜, 메드트로닉, 애플랙 등 편입
SMDV	ProShares Russell 2000 Dividend Growers ETF	– 10 년 이상 연속 배당금을 증액한 미국 중소형주 기업을 동일 가중하여 포트폴리오 구성, 리츠 포함 – 유니버설 헬스 리얼티 인컴, RLI Corp 등 편입
REGL	ProShares S&P MidCap 400 Dividend Aristocrats ETF	– S&P 400 중소형주 Dividend Aristocrats 지수 추종(미 중소형주 중 15 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금을 증액한 기업) – 르네상스리 홀딩스, 머큐리 제너럴 등 편입
KNG	Cboe Vest S&P 500 Dividend Aristocrats Target Income ETF	– NOBL ETF 추종지수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된 기업+S&P 500 지수 수익률을 3% 이상 상회하는 경우 해당 기업들의 콜옵션 일부 행사하여 반영되는 지수 추종 – 신시내티 파이낸셜, 메드트로닉, 애플랙 등 편입
DGRW	WisdomTree US Quality Dividend Growth Fund	– 1) ROA, ROE 가 지속 성장 2) 보통주 주식에 정기적으로 현금 배당하는 미국 중형/대형 기업으로 구성, 리츠 제외 – 마이크로소프트, 엑슨 모빌, 애플, 웰스파고 등 편입
PEY	Invesco High Yield Equity Dividend Achievers ETF	– 1) 시가총액 20 억 달러 이상 2) 10 년 이상 연속 배당금 증액 기업을 수익률 순으로 50 개 선정 후 동일 가중 – 벡터 그룹, AT&T, 인베스코 등 편입

자료: ETFdb.com, 키움증권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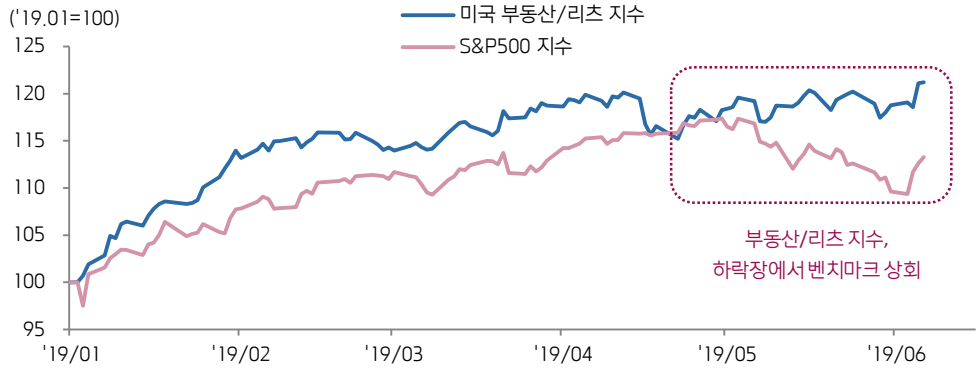
>>> 리츠 ETF에서 찾는 배당 기회

배당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식형 ETF만을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리츠(REITs) ETF의 성과가 더욱 두드러진다. 리츠는 설계 단계부터 안정적 배당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이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전문 자산관리회사가 우량한 주거/비주거,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투자부동산의 임대수익 및 자산가치 상승에 기반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 형태로 분배해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다. 리츠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발생하는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분배해야 하는데, 특히 미국 리츠는 다양한 상품과 안정적인 수익률이 장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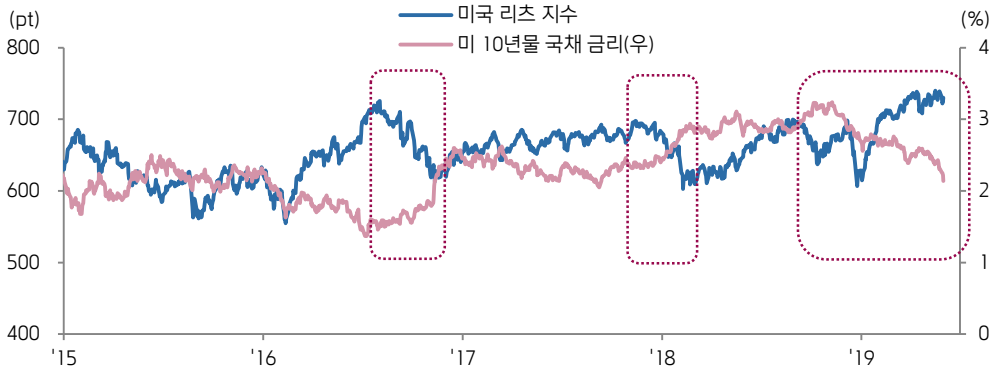
더욱이 최근에는 금리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리츠의 매력은 더욱 확산될 수 있다. 부동산 경기가 유지된다면, 금리 하락은 리츠 회사의 조달비용 감소가 운영수익 상승으로 이어져 리츠 상품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연초 이후 5월 말까지 미국 부동산/리츠 시장을 대표하는 FTSE NAReit 지수는 18.8% 상승하며 S&P 500 대비 약 2배 높은 수익을 냈다.

연초 이후 미국 리츠 지수(FTSE NAReits) vs. S&P 500 누적수익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19-06-06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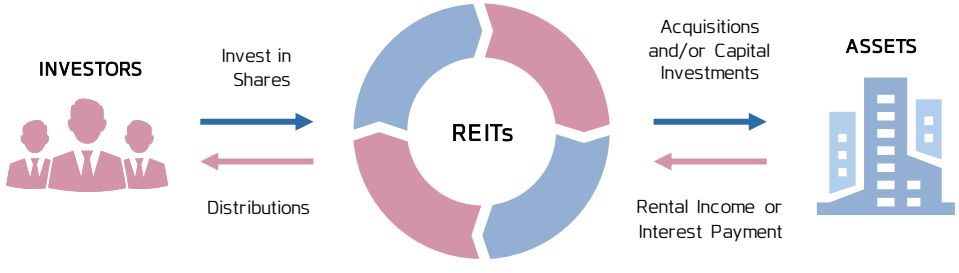
연초 이후 미국 리츠 지수(FTSE NAReits)와 장기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더욱이 미국에서 리츠는 배당주처럼 은퇴자들의 노후 대비용 상품으로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펀드평가회사 모닝스타(Morningstar)가 은퇴자들의 노후 포트폴리오를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리츠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자산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츠는 투자위험과 기대 수익을 고려했을 때 주식과 채권 사이에 위치한 상품이기 때문에 중위험/중수익 투자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 적절하다. 다만, 높은 배당수익률에 대한 대가는 높은 변동성을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리츠 상품이 높은 배당을 지급하지만, 배당 주식형과 비교해서는 더 높은 변동성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금리가 추가로 오르기 어렵고, 기타 금융상품의 기대수익률 역시 높지 않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리츠 상품의 매력도가 확대될 수 있는 시기에 있다고 판단한다.

REITs(리츠) 상품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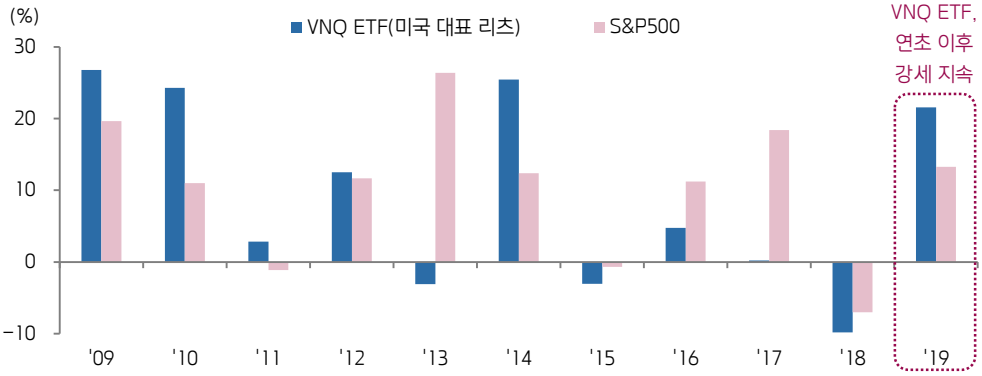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리츠 투자, ETF로의 접근이 매력적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해외 리츠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에 상장된 리츠 ETF 혹은 국내 출시된 펀드를 통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위험도나 편의성을 고려했을 때 역시 미국에 상장된 리츠 ETF에 투자하는 것이 매력적이다. 현재 미국에 상장된 리츠 ETF는 크게 부동산 전체, 주거용 및 산업용 부동산, 소매 부동산, 모기지(Mortgage)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특정 세부 테마보다는 미국 부동산 시장 전반에 투자하는 ETF가 일반적이며, ETF의 운용규모(AUM)도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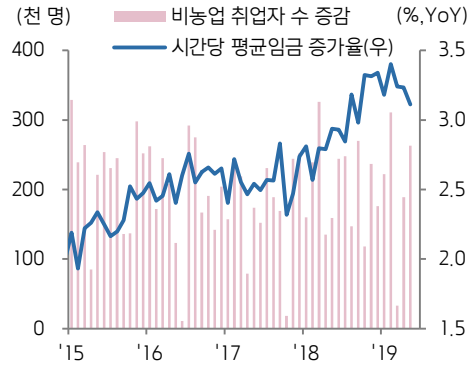
현재 미국에는 40여개의 리츠 ETF가 상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뱅가드(Vanguard)에서 출시한 VNQ이 대표적이다. VNQ ETF는 6월 6일 기준 AUM이 340.2억 달러에 달하여 리츠로는 전세계 최대 규모이다. 현재 포트폴리오 구성은 Vanguard Real Estate Index의 비중이 약 11%로 가장 높고, 이외에 총 188개 리츠/부동산 관련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리츠 171개, 부동산 개발/운영사 등 부동산 관련 기업 17개). 연초 이후 수익률은 +18.9%로,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면서 자금이 지속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주가 상승에도 최근 12개월 배당수익률은 3.88%의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분기 별로 지급되는 배당금을 합산한 연간 배당액은 2018년의 경우 3.53달러에 달한다.

미국 대표 리츠 ETF VNQ (Vanguard Real Estate)의 연도별 수익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19-06-06 기준

미국 고용지표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키움증권 리서치

미국 주택시장 지표

자료: Standard & Poor's, 키움증권 리서치

미국 대표 REITs(리츠) ETF 리스트

티커	ETF 명	AUM ($mln)	거래량 3M (천)	운용 보수 (%)	배당 빈도	배당 수익률 12M (%)	배당성장률(%)			부채비율 12M (%)	순이익 성장률 3Y (%)	수익률(%)		
							1Y	3Y	5Y			1M	1Y	3Y
미국 부동산														
VNQ	Vanguard Real Estate ETF	34,020	5,485	0.12	Q	2.8	-5.1	-0.9	4.9	108.6	8.8	1.5	11.0	5.8
IYR	iShares Us Real Estate ETF	4,431	7,557	0.44	Q	2.7	-9.0	-6.2	0.5	158.2	1.1	1.7	12.3	13.3
SCHH	Schwab Us REIT ETF	5,483	673	0.07	Q	1.1	-11.5	7.0	3.1	94.0	-1.1	0.7	10.0	10.2
ICF	iShares Cohen & Steers REIT	2,258	94	0.35	Q	2.5	-3.4	-6.3	3.0	92.7	5.2	2.5	17.6	12.4
XLRE	Real Estate Select Sect SPDR	3,003	3,824	0.13	Q	2.2	12.8	-0.6	N/A	113.3	7.1	3.1	16.8	16.4
RWR	SPDR Dow Jones REIT ETF	2,421	314	0.25	Q	2.2	30.9	1.7	7.8	94.0	-1.1	0.7	8.7	6.8
USRT	iShares Core Us REIT ETF	1,396	189	0.08	Q	3.3	47.7	10.1	10.4	101.9	1.1	0.9	9.4	7.6
FRI	First Trust S&P REIT Index Fund	147	61	0.49	Q	1.8	27.3	4.5	7.2	98.5	0.6	1.0	10.6	8.9
미국 외 부동산														
VNQI	Vanguard Global Ex-Us Real Est	5,876	355	0.12	Q		-2.8	15.6	5.7	75.0	9.2	-0.1	-5.7	5.8
RWX	First Dj International R E	2,235	341	0.59	Q	1.8	63.4	16.9	-1.2	65.7	-1.6	0.6	-4.1	-9.0
모기지 (Mortgage)														
REM	iShares Mortgage Real Estate	1,241	216	0.48	Q	6.7	-12.3	-5.3	-13.2	529.2	12.2	-3.4	-3.9	2.1
MORT	Vaneck Vectors Mortgage REIR	171	43	0.40	Q	6.7	-9.9	-4.8	-12.0	503.3	22.9	-3.3	-3.4	6.8
기타														
REZ	iShares Residential Real Est	458	31	0.48	Q	2.9	-0.3	-4.2	4.2	N/A	N/A	4.5	20.9	15.9
URE	ProShares Ultra Real Estate	144	16	0.95	Q	0.1	38.5	14.5	11.1	158.2	1.1	3.0	25.3	36.7
DRN	Drx Dly Real Estate Bull 3x	47	41	0.95	Q	1.1	181.9	N/A	N/A	98.7	-2.0	1.6	29.8	22.4
PSR	Invesco Active Us Real Estate	55	5	0.35	Q	0.7	351.7	-9.3	14.0	N/A	N/A	2.0	14.3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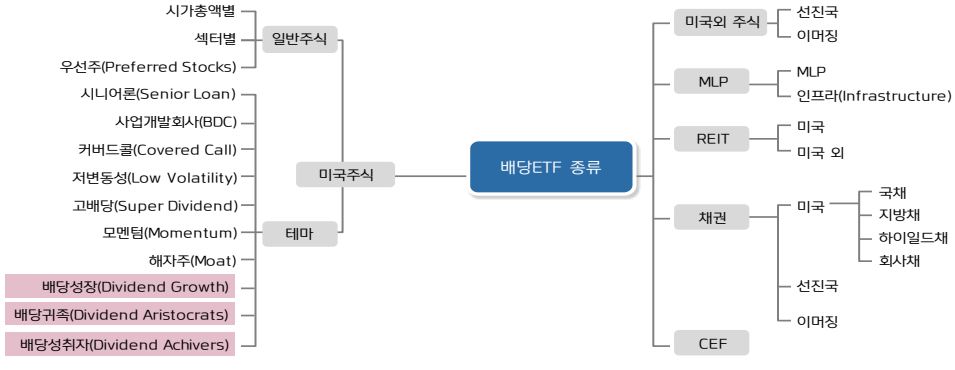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19-06-06 기준,

II. 배당주 ETF 포트폴리오

저금리 시대에서 주가 상승을 통한 자본이익(Capital Gain)과 배당수익(Dividend)을 안정적으로 제공해줄 배당 테마 ETF를 찾아본다. 특히, 최근에 높아진 글로벌 금리인하 기대감을 반영한다면 배당 ETF의 매력은 더욱 부각될 수 있다.

미국에는 주식형 배당 ETF만 해도 150개가 넘을 만큼 배당을 테마로 한 상품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AUM, 거래량, 배당금(분배금) 및 이익 성장세, 부채비율, 운용보수 등을 고려하여 관심 종목을 선정해 보았다.

미국 배당 ETF 분류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배당 테마 ETF 포트폴리오

티커	ETF 명	AUM ($mln)	거래량 3M (천)	운용 보수 (%)	배당 빈도	배당 수익률 12M (%)	배당성장률(%)			부채비율 12M (%)	순이익 성장률 3Y (%)	수익률(%)		
							1Y	3Y	5Y			1M	1Y	3Y
고배당 (High Yield Dividend)														
VYM	Vanguard High Dvd Yield ETF	23,737	974	0.06	Q	3.0	9.9	7.5	8.5	N/A	N/A	-1.7	0.5	20.8
SCHD	Schwab US Dvd Equity ETF	9,275	936	0.06	Q	2.7	19.4	9.2	9.9	106.5	6.8	-3.0	3.0	27.0
DLN	Wisdomtree US Large-cap Dividend	2,040	61	0.28	M	3.4	22.6	10.4	10.9	141.6	11.1	-2.4	3.4	26.0
배당성장 (Dividend Growth)														
VIG	Vanguard Dividend Appreciation ETF	34,275	798	0.06	Q	1.8	13.7	6.7	8.5	92.1	9.9	-0.3	8.1	36.7
NOBL	ProShares S&P 500 Dividend Aristocrats	4,748	523	0.35	Q	1.4	13.6	9.6	33.3	80.2	12.4	-0.5	7.3	26.9
DGRO	iShares Core Dividend Growth	7,417	1,326	0.08	Q	2.3	13.5	21.3	N/A	N/A	N/A	-1.4	6.4	36.9
DGRW	Wisdomtree U.S. Quality Dividend	2,613	330	0.28	M	3.5	38.0	14.1	16.2	123.5	14.1	-3.2	0.9	34.8
리츠 (REITs)														
VNQ	Vanguard Real Estate ETF	34,020	5,485	0.12	Q	2.8	-5.1	-0.9	4.9	108.6	8.8	1.5	11.0	5.8
XLRE	Real Estate Select Sect SPDR	3,003	3,824	0.13	Q	2.2	12.8	-0.6	N/A	113.3	7.1	3.1	16.8	16.4
USRT	iShares Core Us REIT ETF	1,396	189	0.08	Q	3.3	47.7	10.1	10.4	101.9	1.1	0.9	9.4	7.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19-06-06 기준,

Appendix

(1) 분기/월 배당 종목을 활용한 월 지급식 포트폴리오 구성

분기/월 배당주 투자 사례

티커	종목명	배당 지급 월												배당 수익률(%)
		1	2	3	4	5	6	7	8	9	10	11	12	
JPM	JP Morgan chase & co	○			○			○			○			3.0
AXP	American Express		○			○			○			○		1.4
WMT	Walmart			○			○			○			○	2.1
O	Realty Income	○	○	○	○	○	○	○	○	○	○	○	○	3.9

자료: Dividend.com,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19-06-03 기준

1, 4, 7, 10월 분기배당 유망 종목

티커	종목명	시가총액 ($ mln)	배당 수익률(%)	연 환산 배당금	배당락일	배당 지급 예정일	배당성장률(%)		수익률(%)	
							1Y	3Y	1Y	3Y
JPM	JP Morgan chase & co	345,353	3.0	$3.2	2019-07-03	2019-07-31	35.8	18.9	-1.8	64.7
KO	Coca-Cola co	213,220	3.2	$1.6	2019-06-13	2019-07-01	4.7	5.4	14.9	11.0
MRK	Merck & co.	206,641	2.7	$2.2	2019-06-14	2019-07-08	8.4	4.2	29.4	41.7
CMCSA	Comcast -class A	185,909	2.1	$0.8	2019-07-02	2019-07-24	17.7	15.0	30.9	28.9
AMT	American Tower	92,511	1.8	$3.7	2019-06-18	2019-07-12	20.0	20.2	49.4	95.7
CB	Chubb	67,678	2.0	$3.0	2019-06-20	2019-07-12	2.8	2.9	12.2	15.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19-06-03 기준

2, 5, 8, 11월 분기배당 유망 종목

티커	종목명	시가총액 ($ mln)	배당 수익률(%)	연 환산 배당금	배당락일	배당 지급 예정일	배당성장률(%)		수익률(%)	
							1Y	3Y	1Y	3Y
AXP	American Express	95,717	1.4	1.6	2019-07-03	2019-08-09	10.9	9.4	15.3	75.0
LOW	Lowe's	73,469	2.3	2.2	2019-07-23	2019-08-07	17.1	19.7	-3.8	17.3
MMC	Marsh & Mclennan	49,319	1.9	1.8	2019-07-10	2019-08-15	10.7	10.2	19.1	45.8
APD	Air products & Chemicals	45,999	2.2	4.6	2019-06-28	2019-08-12	12.9	10.7	27.8	57.8
HRL	Hormel Foods	21,652	2.1	0.8	2019-07-12	2019-08-15	11.2	13.8	11.7	16.6
CLX	Clorox	19,434	2.8	4.2	2019-07-30	2019-08-16	10.3	7.6	25.9	17.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19-06-03 기준

3, 6, 9, 12월 분기배당 유망 종목

티커	종목명	시가총액 ($ mln)	배당 수익률(%)	연 환산 배당금	배당락일	배당 지급 예정일	배당성장률(%)		수익률(%)	
							1Y	3Y	1Y	3Y
WMT	Walmart	292,332	2.1	$2.1	2019-08-08	2019-09-03	1.9	2.0	19.4	43.9
PEP	Pepsico	180,807	3.0	$3.8	2019-06-06	2019-06-28	11.0	9.1	28.8	25.8
QCOM	Qualcomm	81,038	3.7	$2.5	2019-06-05	2019-06-27	6.4	8.0	13.5	21.3
ANTM	Anthem	71,099	1.2	$3.2	2019-06-07	2019-06-25	8.9	6.5	22.7	109.7
BDX	Becton Dickinson	62,756	1.3	$3.1	2019-06-06	2019-06-28	2.7	6.5	1.9	37.5
TRV	Travelers cos	38,446	2.2	$3.3	2019-06-07	2019-06-28	6.9	8.1	13.2	28.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19-06-03 기준

(2) 월 배당 미국 종목 리스트

월 배당 TOP 40 종목 리스트

티커	종목 명	섹터	시가총액 ($ mln)	배당 수익률 12M (%)	배당성향 12M (%)	연환산 배당액 ($)	배당락 예정일	부채비율 12M (%)	순이익 성장률 3Y (%)	배당성장률(%)			수익률(%)		
										1Y	3Y	5Y	1M	3M	YTD
O	리얼티 인컴	부동산	22,979	3.7	209.4	2.7	05/31	80.0	8.8	3.6	4.7	4.1	9.0	4.1	15.2
LTC	LTC 프로퍼티스	부동산	1,779	5.1	58.3	2.3	06/19	77.4	32.2	0.0	2.5	2.9	-0.9	2.4	7.4
STAG	STAG 인더스트리얼	부동산	3,959	4.7	178.2	1.4	06/27	79.4	-12.7	0.8	1.0	2.8	5.4	9.7	22.7
SJR	쇼 커뮤니케이션스	커뮤니케이션	10,599	4.3	341.9	0.9	06/13	72.9	-26.9	-4.1	-0.1	-1.7	2.2	1.7	14.6
LAND	글래드스톤 랜드	부동산	225	4.4	366.5	0.5	06/18	160.6	-2,903	0.7	3.4	-16.6	-2.4	3.1	6.3
PFLT	페넌트파크플로팅 레이팅	금융	454	9.7	130.2	1.1	06/14	87.3	56.2	-8.3	-1.8	0.6	-11.5	-9.4	1.1
MAIN	메인 스트리트 캐피털	금융	2,556	6.0	121.5	2.5	06/17	67.5	18.1	2.7	2.4	3.9	2.7	9.9	20.5
AVAL	그루포 아발 악시오네스	금융	7,867	5.5	N/A	0.4	06/28	172.1	13.9	-15.5	-5.8	N/A	-9.8	-7.7	18.0
GOOD	글래드스톤 커머셜	부동산	634	7.2	4,402.7	1.5	06/18	166.5	55.9	0.0	0.0	0.0	-2.8	3.5	16.8
ORC	오키드 아일랜드 캐피털	금융	333	15.4	N/A	1.0	05/30	900.1	-741.8	-33.3	-17.1	-12.3	-4.3	-6.6	-2.3
EFC	엘링턴 파이낸셜	금융	524	9.5	108.7	1.7	05/30	431.7	-139.0	0.0	-7.9	-11.4	-2.0	0.6	14.9
GWRS	글로벌 워터 리소스	유틸리티	211	2.9	184.7	0.3	06-13	411.0	-141.6	1.7	142.4	N/A	2.2	2.6	-3.2
CLDT	채텀 로징 트러스트	부동산	874	7.0	198.5	1.3	05/30	72.2	-2.3	0.0	0.3	8.9	-5.9	-0.1	6.1
HCAP	하베스트 캐피털 크레딧	금융	64	9.3	146.7	1.0	06/19	57.3	43.7	-21.7	-7.2	-4.0	-0.9	2.2	2.7
ITUB	이타우 우니방쿠 홀딩스	금융	81,565	0.5	90.1	0.0	06/03	371.4	-0.8	4.5	48.0	21.8	8.1	-3.2	-2.5
ECC	이글 포인트 크레디트	N/A	399	13.9	N/A	2.4	06/11	N/A	N/A	-15.8	0.0	N/A	-0.5	2.6	21.5
APLE	애플 호스피탤리티 리츠	부동산	3,486	7.7	133.9	1.2	05/31	41.4	20.8	0.0	0.0	N/A	-5.4	-4.2	9.2
ROYT	퍼시픽코스트 오일	에너지	79	18.4	100.0	0.4	05/31	0.0	631.3	78.9	25.1	-27.8	-8.1	3.6	24.4
EPR	EPR 프로퍼티스	부동산	6,015	5.6	132.2	4.5	05/30	104.2	11.4	5.1	5.7	6.1	3.2	7.6	24.4
CSB	빅토리셰어 US 트러스트	N/A	69	2.0	N/A	0.8	05/15	N/A	N/A	-12.8	14.1	N/A	-4.6	-2.4	6.7
ARR	아머 레지덴셜 리츠	금융	1,091	12.5	N/A	2.3	06/14	625.4	-203.5	0.0	-15.4	-16.0	-3.6	-6.1	-11.0
PRT	펌록 로열티 트러스트	에너지	100	13.1	0.0	1.1	05/30	0.0	N/A	108.9	N/A	N/A	-6.3	5.1	39.4
MAIN	메인 스트리트 캐피털	금융	2,556	6.0	121.5	2.5	06/17	67.5	18.1	2.7	2.4	3.9	2.7	9.9	20.5
WSR	화이트스톤 리츠	부동산	505	9.0	212.7	1.1	07/01	172.1	59.9	0.0	0.0	0.0	0.4	9.2	3.3
GORO	골드 리소스	소재	185	0.7	11.8	0.0	06/10	2.7	53.9	0.0	-36.6	-40.1	-19.7	-25.9	-25.8
AGNC	AGNC 인베스트먼트	금융	9,060	11.4	1,036.6	1.9	05/30	983.5	43.4	-0.9	-3.7	-7.4	-4.0	-4.9	-3.7
GECC	그레이트 ELM 캐피탈	금융	89	11.5	N/A	1.0	06/27	69.3	N/A	3.3	N/A	N/A	1.8	5.6	9.9
SBR	사빈 로열티 트러스트	에너지	655	9.6	97.8	4.3	06/14	0.0	10.0	39.1	12.6	-2.4	-4.4	1.0	20.5
PBT	퍼미언베이슨 로열티	에너지	261	7.6	100.0	0.4	05/30	0.0	25.7	-21.1	17.2	-13.6	-14.8	-27.1	-5.3

자료: Dividend.com,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19-06-06 기준, 연환산 배당액은 가장 최근 배당금을 연율화 한 값,

(3) 국내 상장 배당관련 ETF

국내 주요 배당 ETF/주식형 펀드

구분	배당 ETF/주식형 펀드 상품명	대표 클래스	최초 설정일	AUM (억원)	수익률 6M	수익률 1Y	수익률 3Y
ETF	한화 ARIRANG 고배당주 상장지수	N/A	2012-08-28	306	-0.9	-1.8	18.2
	KB KBSTAR 대형고배당 10 TotalReturn 상장지수		2019-01-22	187	N/A	N/A	N/A
	KB KBSTAR 고배당 상장지수		2017-04-14	532	0.7	-7.8	N/A
	KB KBSTAR 중소형 고배당 상장지수		2017-11-02	398	-1.3	-13.2	N/A
	미래에셋 Tiger 코스피고배당 상장지수		2014-12-04	345	2.2	-4.3	9.0
	미래에셋 Tiger 배당성장 상장지수		2014-12-16	185	3.7	-9.9	-5.5
	미래에셋 Tiger 지속배당 상장지수		2017-03-30	75	-0.3	-6.7	N/A
	한국투자 KINDEX 배당성장 상장지수		2014-12-10	59	3.52	-9.8	-5.5
	교보악사 파워고배당저변동성 상장지수		2014-02-19	148	-0.2	-5.8	14.2
	키움 KOSEF 고배당 상장지수		2008-07-29	102	9.1	3.1	18.9
	키움 KOSEF 배당바이백플러스 상장지수		2016-12-16	108	0.4	-7.1	N/A
	DB 마이티 코스피고배당 상장지수		2014-12-10	91	2.0	-4.5	9.2
국내 주식형 펀드	신영 밸류고배당자 (주식)	C	2003-05-26	25,261	0.3	-12.8	0.8
	KB 통중국고배당자 (주식)	A	2015-02-09	3,573	1.7	-16.9	31.2
	KB 액티브배당자 (주식)	C-F	2011-11-02	3,453	-2.1	-11.4	15.3
	베어링 고배당 (주식)	A	2002-04-02	3,234	0.9	-9.7	9.5
	베어링 고배당자 (주식)	C2	2016-08-09	3,068	0.87	-9.6	N/A
	베어링 고배당플러스 (주식)	F	2014-06-30	2,444	1.6	-8.3	14
	한국밸류 10년투자배당자 (주식)	A	2013-12-24	1,541	10	-3.7	7
	미래에셋 고배당포커스자1 (주식)	A	2013-05-06	1,046	4.1	-2.1	1.1
	신영 고배당자 (주식)	S	2014-04-22	840	-1.3	-13.8	3.3
	삼성 배당주장기1 (주식)	C5	2005-05-10	711	1.3	-5	6.4
	신영 프라임배당 (주식)	C5	2004-11-16	471	-1.9	-16.5	-1.5
	마이다스 블루칩배당1 (주식)	A1	2005-12-07	390	1	-14.4	8.2
	NH-Amundi Allset 고배당주자 (주식)	A	2016-12-20	384	-1.6	-12.6	N/A
	BNK 튼튼배당자1 (주식)	A1	2013-09-03	352	0.2	-10.3	9.3
	하나UBS 코리아배당1 (주식)	C5	2003-05-23	278	0	-11.2	3.4
	마이다스 블루칩배당W (주식)	C5	2004-07-23	228	1.3	-13	10.3
	한국투자 배당리더자1 (주식)	C4	2014-09-01	182	-3.2	-11.3	-0.7
	동양 자녀사랑고배당1 (주식)	A	2009-11-09	147	-1.1	-14.2	-1.9
	DB 진주찾기 고배당1 증권투자신탁(주식	C-F	2014-08-08	112	-1.1	-14.1	-4.7
	신한BNPP 프레스티지고배당자1 (주식)	C-I	2010-05-31	98	2.4	-9.5	17.7
	DGB 똑똑가치배당자 (주식)	CF	2017-06-19	84	-1.9	-13.4	N/A
	KB 리서치고배당 (주식)	C4	2014-09-01	84	-2.5	-15.6	4.4
	키움 고배당에이스자1 (주식)	C5	2005-03-07	78	-4.1	-16.8	1.9
	하이 굿초이스 배당자1 (주식)	CF	2014-08-28	70	-3.7	-18.7	-3.3
	트러스톤 장기고배당자 (주식)	A	2014-09-03	66	0.8	-11.2	-0.7
	신한BNPP 프레스티지고배당자2 (주식)	C5	2004-01-02	45	1.9	-10.2	14.7
	한화 배당성장인덱스자1 (주식)	C	2001-12-06	41	-0.2	-9	8.9
	한화 배당성장인덱스자2 (주식)	A	2002-06-03	41	0.1	-8.6	8.7
	한국투자 셀렉트배당자1 (주식)	C5	2003-05-23	31	10.1	-10.2	3.3
	HDC 알짜배당 (주식)	C5	2005-06-27	26	-1.6	-15.3	9.4
	미래에셋 4차산업과배당 (주식)	C-P	2017-10-27	16	-0.4	-8	N/A
	신영 장기배당자 (주식)	C	2016-03-30	7	0.3	-12.7	6.7

자료: FundDoctor, 키움증권 리서치 주1) AUM과 수익률은 2019-06-04 기준
주2) 주식형 펀드는 순자산액이 가장 큰 대표 클래스로 선정

ETF 종목 분석

Vanguard Dividend Appreciation ETF (VIG.US)
미국 배당성장주에 투자하자

ProShares S&P 500 Dividend Aristocrats ETF (NOBL.US)
미국 '배당귀족주'에 투자하는 ETF

Vanguard Dividend Appreciation ETF (VIG.US)

미 대형 배당성장주에 투자하자

Global ETF Strategist 김진영
02-3787-4870/jykim@kiwoom.com
RA 지은송
02-3787-4932/jesky95@kiwoom.com

Vanguard Dividend Appreciation ETF (VIG ETF)는 미국의 대형주 중에서 '배당성장주'들로 구성된 ETF로, Nasdaq US Dividend Achievers Select Index를 추종한다. 10년 이상 꾸준히 연간 배당금을 증액시켜온 기업들에 투자하며, 배당성장의 가능성이 작은 기업들과 리츠(REITs) 종목들은 제외하고 있다. 즉, 배당수익률 보다도 안정적인 배당 성장에 목표를 가지고 운용되는 상품이다. 운용보수는 0.06%로 매우 저렴하며, AUM 및 거래량 측면에서 볼 때, 미국 배당 ETF 중 가장 대중적인 상품이다. 구성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P&G 등으로 산업재 및 소비재의 비중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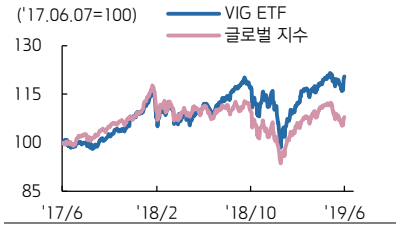
- 블룸버그 목표주가: N/A
- 현재주가(06/06): USD 112.72

Stock Data

ETF 테마	배당성장주
설정일	2006-04-27
운용보수 (%)	0.06
AUM (백만 USD)	33,664.8
유통주식수 (백만)	304.0
52 주 최고/최저 (USD)	113.83 / 91.68
일평균 거래량 (3M)	886,141

Performance & Price Trend

주가수익률 (%)	YTD	1M	6M	12M
절대	15.1	-0.3	7.1	8.1
글로벌지수	10.8	-3.2	5.3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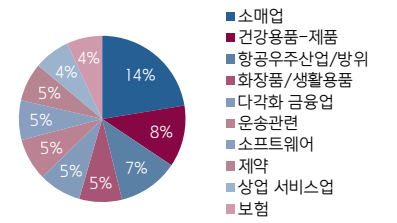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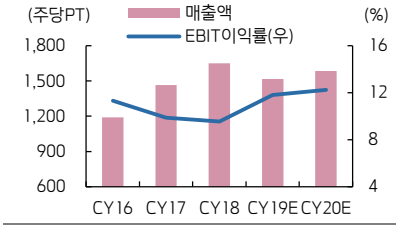
(주당 PT)	CY17	CY18	CY19E	CY20E
매출액	1,464.6	1,651.8	1,518.0	1,584.8
EBIT	146.12	158.46	179.23	194.20
EBIT 이익률(%)	9.89	9.54	11.81	12.25
순이익	103.06	125.75	132.94	145.47
PER(배)	23.12	18.07	19.24	17.59
PBR(배)	4.38	4.17	4.20	3.87
ROE(%)	18.45	21.48	24.56	24.30
배당수익률(%)	1.94	2.21	1.99	2.13

자료: 블룸버그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서치

섹터별 구성 비중



기초자산 연간 실적 및 전망



자료: 블룸버그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서치

나스닥 지수 대표 배당성장주에 투자하는 ETF

VIG ETF는 미국 대형주 중에서도 10년 이상 꾸준히 연간 배당금을 증액시켜온 기업들에 투자하는 대표 '배당성장' ETF이다. 기초자산인 Nasdaq US Dividend Achievers Select Index는 1) 나스닥 지수 내에서, 2) 연간 배당액을 10년 이상 꾸준히 증액시켜왔으며, 3) 리츠를 제외한 184개 기업을 시가총액으로 가중하여 구성된다. 구성 종목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4.4%), 비자(4.2%), P&G(4.1%), 월마트(3.9%), 존슨앤존슨(3.9%), 컴캐스트(3.7%), 맥도날드(2.8%) 등 산업재와 소비재, 헬스케어 업종 비중이 높다. 해당 기업들은 대부분 주주친화적 배당정책으로 유명한데, 특히 월마트의 경우 2000년 이래로 분기별 현금배당을 꾸준히 지급해왔다. 또한, P&G와 존슨앤존슨의 경우 5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증액해온 'Dividend King'에 해당한다.

연간 배당액, 배당성장률, 배당수익률 모두 우수

'배당성장'을 테마로 출시된 ETF인 만큼 ETF 자체의 배당 매력이 돋보인다. VIG ETF의 배당은 분기별로 연 4회(3월 or 4월, 6월 or 7월, 9월 or 10월, 12월) 이루어지며, 오는 6월 17일 배당락일을 앞두고 있다. 분기 별 배당금액을 합산한 연간 총 배당금액은 2009년 이래로 10년째 지속 성장해 왔다. 2018년의 경우 VIG ETF의 연간 배당액은 2.04 달러인데, 동기간 나스닥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의 연 환산 배당액을 시가총액으로 가중 평균한 값(1.02달러)의 두 배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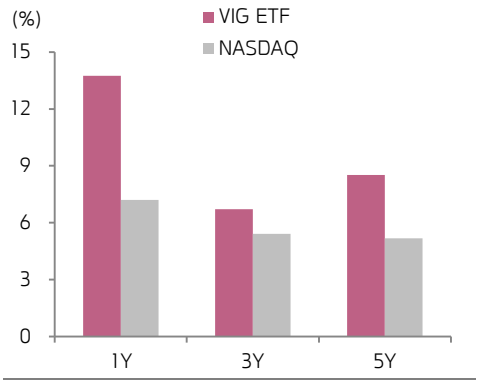
VIG ETF의 배당성장률 역시 나스닥 지수에 비하여 우수하다. VIG ETF의 최근 1년, 3년, 5년 배당성장률은 각 13.8%, 6.7%, 8.5%로, 동기간 나스닥 지수의 배당성장률(각 7.2%, 5.4%, 5.2%)을 크게 상회한다. 최근 12개월 배당수익률 역시 1.94%로 나스닥 지수(1.13%) 대비 높다

수익률 동향 및 추적오차

VIG ETF는 YTD 15.1%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 특히 최근 약세장에서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 우려가 재점화 되면서 글로벌 증시 하락폭이 컸던 지난 한달 간, VIG ETF는 0.3% 하락에 그치며 글로벌 지수(-3.2%) 대비 하락폭을 크게 축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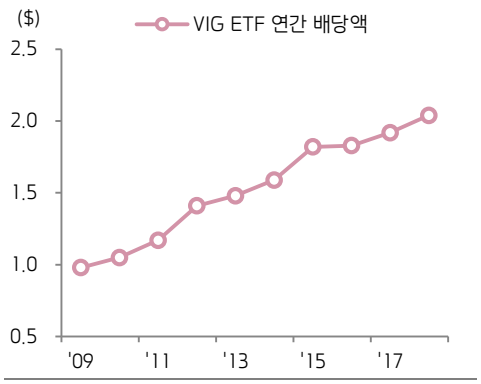
VIG ETF의 추적오차 역시 매우 양호한 편이다. 기초자산과 ETF의 주가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100%에 근접할수록 추적오차가 작다고 해석할 수 있다. VIG ETF 설정(2006년 4월) 이후, 그리고 최근 5년과 최근 1년동안, 기초자산(DVGTR Index)과 VIG ETF의 일간 수익률로 분석한 상관계수는 각각 99.30%, 99.47%, 99.6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VIG ETF, 나스닥 지수 1~5년 배당성장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19-06-06 기준

VIG ETF 연간 배당액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VIG ETF Top 10 보유종목

보유 종목 명		비중 (%)	Ticker	섹터 (GICS)	시가총액 ($mln)	YTD (%)
Microsoft corp	마이크로소프트	4.42	MSFT	정보기술	979,461	25.84
Visa inc-class A	비자	4.21	V	정보기술	333,183	26.51
Procter & Gamble co	P&G	4.10	PG	필수소비재	269,344	16.82
Walmart	월마트	3.94	WMT	필수소비재	301,363	12.84
Johnson & Johnson	존슨앤드존슨	3.92	JNJ	건강관리	362,893	5.91
Comcast corp-class A	컴캐스트	3.70	CMCSA	커뮤니케이션	186,771	20.85
Mcdonald's	맥도날드	2.85	MCD	자유소비재	155,040	14.35
Abbott Laboratories	애보트 래버러토리	2.63	ABT	건강관리	141,293	10.73
Union Pacific	유니온 퍼시픽	2.41	UNP	산업재	120,807	23.47
United Technologies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2.31	UTX	산업재	113,538	23.6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Portfolio, YTD 수익률: 2019-06-06 기준

ProShares S&P 500 Dividend Aristocrats ETF (NOBL.US)

미국 '배당귀족주'에 투자하는 ETF

Global ETF Strategist 김진영
02-3787-4870/jykim@kiwoom.com
RA 지은송
02-3787-4932/jesky95@kiwoom.com

ProShares S&P 500 Dividend Aristocrats ETF (NOBL ETF)는 미국 배당성장주 중에서 적어도 25년 이상 배당금을 증가시켜온 기업, 즉 '배당귀족주(Dividend Aristocrats)'에 투자하는 테마 ETF이다. S&P 500 Dividend Aristocrats Index를 기초자산으로 추종하는데, 동 지수는 1) S&P 500 종목 내에서 2) 과거 25년 이상 배당을 증액했으며 3) 일정한 유동성 조건을 만족시키는 57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투자심리가 우려에서 공포로 넘어가는 이 시기, 배당주 투자는 적어도 주가 하락을 견뎌낼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해 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배당성장주는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만큼 장기적인 투자처로서의 매력도 상존한다.

미국 '배당귀족주'에 투자하는 ETF

NOBL ETF는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성장 ETF로 '배당귀족주(Dividend Aristocrats)', 즉, 25년 이상 배당금을 증액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이다. 기초자산인 S&P 500 Dividend Aristocrats Index(이하 SPDAUDP 지수)는 1) S&P 500 지수 내에서, 2) 배당금을 25년 이상 꾸준히 늘려왔으며, 3) 일정한 유동성 조건(최소 3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최소 5백만 달러 이상의 평균거래량)을 충족시키는 57개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간 운용보수 0.35%라는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 지급을 통해서 미국의 우량한 배당주에 한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인덱스 종목은 매년 리밸런싱 되며, 편입 종목들은 2% 내외의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분산 투자되고 있다.

흔들리는 파도에서 중심 잡기

배당이 지속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이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실제로 NOBL ETF는 배당뿐만 아니라 주가 수익률 차원에서도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투자 기간을 확장시키면 벤치마크 지수 대비 배당주의 아웃퍼폼이 더 명확히 드러나는데, 1990년 1월부터 5월 말까지의 수익률을 트랙킹 한 결과, 추종지수인 SPDAUDP 지수의 수익률은 S&P 500 지수를 약 1.5배 상회했고,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Total Return 지수의 경우 약 3.3배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흔들리는 장에서의 리스크 방어 능력 역시 더 뛰어난 것으로 관찰된다. 증시 하락폭이 두드러졌던 2002년과 2008년, 그리고 지난해 SPDAUDP 지수는 모두 S&P 500 지수 대비 하락폭을 크게 축소했다. 결국, 배당성장주의 가치는 위기 틈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도 그럴 것이 적어도 25년 배당금을 삭감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시아 외환위기, 닷컴버블, 서브프라임모기지, 유럽 재정위기, 브렉시트, 트럼프 선거 등 굵직한 위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던 기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재무관리가 가능하면서도 주주가치 제고에 가치를 둔 기업이라면 향후에도 성장을 더 이어나갈 기초체력을 갖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수익률 동향 및 추적오차

NOBL ETF는 연초 이후 12.1%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지수 대비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갈등 우려가 재점화되며 증시 변동성이 심했던 최근 한 달 간, NOBL ETF는 0.5% 하락에 그치며 글로벌 지수(-3.2%) 대비 하락폭을 축소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식시장 반등 시에는 ETF의 성과가 성장주 대비 다소 부진했으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의 수익률 방어는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추적오차 역시 매우 양호한 편인데, ETF 설정 이후부터 최근 5년, 최근 1년 간 기초자산과 NOBL ETF의 일간 수익률로 분석한 상관계수는 모두 99%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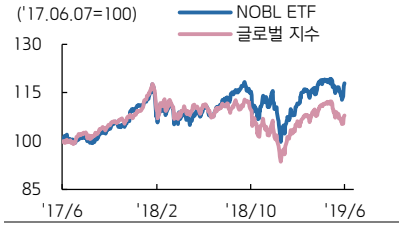
- 블룸버그 목표주가: N/A
- 현재주가(06/06): USD 68.12

Stock Data

ETF 테마	배당성장주
설정일	2013-10-10
운용보수 (%)	0.35
AUM (백만 USD)	4,748.0
유통주식수 (백만)	69.7
52 주 최고/최저 (USD)	69.06 / 56.79
일평균 거래량 (3M)	578,561

Performance & Price Trend

주가수익률 (%)	YTD	1M	6M	12M
절대	12.5	-0.5	5.5	7.3
글로벌지수	10.8	-3.2	5.3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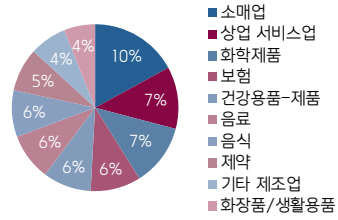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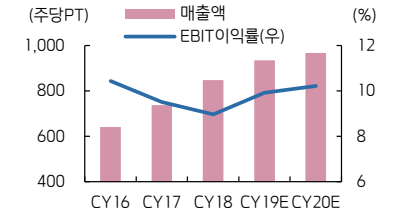
(주당 PT)	CY17	CY18	CY19E	CY20E
매출액	737.76	847.28	935.16	967.77
EBIT	70.63	76.75	92.74	98.84
EBIT 이익률(%)	9.51	8.96	9.92	10.21
순이익	50.22	63.20	69.52	74.88
PER(배)	22.64	17.07	17.37	16.13
PBR(배)	4.13	3.59	3.33	3.13
ROE(%)	18.35	18.88	16.21	17.70
배당수익률(%)	2.26	2.88	2.56	2.70

자료: 블룸버그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서치

섹터별 구성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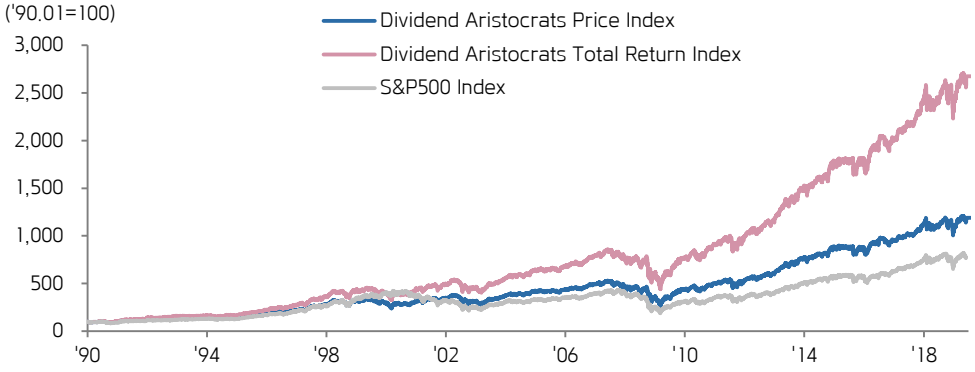


기초자산 연간 실적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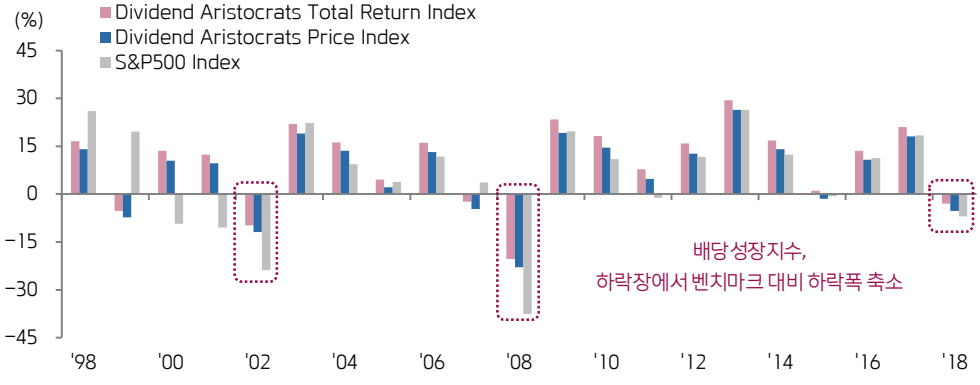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서치

90년대 이후 미 배당귀족(Dividend Aristocrats) vs. S&P 500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파란색은 S&P 500 구성종목 중 25년 이상 배당성장한 기업들로 구성 된 S&P 500 Dividend Aristocrats Price Index, 분홍색은 해당 지수를 모지수로 하는 Total Return Index

배당 귀족(Dividend Aristocrats) vs. S&P 500 연간 수익률 비교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NOBL ETF Top 10 보유종목

보유 종목 명		비중 (%)	Ticker	섹터 (GICS)	시가총액 ($mln)	YTD (%)
Cincinnati Financial Corp	신시내티 파이낸셜	2.08	CINF	금융	16,602	31.37
Medtronic Plc	메드트로닉	2.02	MDT	건강관리	129,377	6.09
Air Products & Chemicals Inc	에어 프로덕츠 앤드 케미컬스	1.97	APD	소재	48,757	38.39
Aflac Inc	애플랙	1.96	AFL	금융	40,121	18.13
Cintas Corp	신타스	1.92	CTAS	산업재	24,212	37.83
Chubb Ltd	처브	1.92	CB	금융	68,067	15.08
Linde Plc	Linde PLC	1.91	LIN	소재	107,115	26.47
Kimberly-Clark Corp	킴벌리클라크	1.89	KMB	필수소비재	45,924	17.24
Consolidated Edison Inc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	1.89	ED	유틸리티	29,795	17.05
Hormel Foods Corp	호멜 푸즈	1.88	HRL	필수소비재	22,149	-2.7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Portfolio, YTD 수익률: 2019-06-06 기준